

‘익산형 일자리’ 노사민정 시민원탁회의

오늘 원광대 WM관 트레이닝룸서 각계각층 100명 패널 참가

익산시는 5일 원광보건대학교 WM관 트레이닝룸에서 노사민정 각 분야의 패널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민원탁회의는 익산시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가운데 근로자와 기업가, 시민, 의회, 언론인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의

패널들이 8개의 모듈로 나뉘어 ‘익산형 일자리’에 대한 토론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도연 교수는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을 식품산업으로 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관련 분야 근로자와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등을 제안하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토론회가 근로자, 기업체, 시민, 익산시가 상생과 협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산업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4월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익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 왔다.

또 식품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립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간담회, 노사민정협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등과 수차례 세미나 진행해 왔다.

/익산=장민천 기자

군산시 그랜드 취업박람회 개최

7일 군산대 종합체육관

군산시가 구직자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기업들에게는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랜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7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군산시와 전북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며 도내 40여개 유망 기업이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http://open.jobkorea.co.kr>)운영(10.31~12.7)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군산시 취업박람회는 채용관, 컨설팅관 등 총 70여개 부스와 구인기업, 구직자 등 1500명 규모로 치러진다. 채용관 구성은 청년 및 여성선호 우수기업 등 별도의 테마별 채용관을 구성할 계획이며, 해외취업상담관, 전북도 이전 공공기관 및 금융권 채용설명관 부

스를 운영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우수협력사 전문채용관과,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명신, 에디스모터스, 대창모터스 등)의 홍보관 및 채용 설명관을 운영해 도내 우수기업과 양질의 일자리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별 취업 채용관에서는 참여기업과 구직자간 일대일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컨설팅 및 부대행사에서 구직활동 확인, 직업선도 검사, 노무상담 컨설팅관 등을 운영해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과 일반 구직자들에게 기업정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박람회 현장 참여 면접자에게는 소정의 면접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업박람회를 통해 많은 취업준비 학생과 구직자들은 기업체 면접 및 상담 등의 시간을 갖고, 각종 취업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사라야코리아, 익산 제3산단 분양계약 체결

3306㎡ 부지에 15억원 투자, 10여명 고용 계획

익산시는 4일 시장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 (주)사라야코리아 김홍영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주)사라야코리아와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투자를 위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분양계약 체결에 따라 (주)사라야코리아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3,306㎡ 부지에 15억원을 투자하고 1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산단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사라야코리아는 위생, 환경, 건강을 모토로 식품위생 및 개인위생, 공중위생 분야에서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의료용 기기, 과학기기,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위생 전문 기업이다.

최근 메르스 등 해외 유래 전염병,

미세먼지 등에 의한 위생 및 보건 관련 물품의 수요증가로 지속적인 매출(150억원, 2018년 기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식품소독첨가제 등의 자체생산 공장 설비를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 투자를 결정해 주신 데 감사드리다”며 “익산시에 투자하는 기업이 조기 정착하여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가 제220회 임시회를 개최 중인 가운데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과 대안 제시로 주목을 끌고 있다.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은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및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업체의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택 의원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이 높으므로,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운영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연 의원은 귀농인들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남석 의원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시 교육 현장을 잘 반영하고 익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 및 관리에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은 유휴성토들 무료점종 대상자 중에 거동불편자들은 스스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재동 의원은 불법 주·정차로 시내 노면청소차 운행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노후 청소차량 매연에 의한 환경미화원의 건강이 염려되므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일)가 결산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예결위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집행부로부터 군산형 일자리사업 지원, 관광기반편익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과 함께 결산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와 관련 예결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추경 사업의 중재내역 및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 기반 확충에 걸맞고 주민목구에 부응하는 건전재정의 효율적인 2020년 살림살이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광일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군산의 지역경제가 어려워 민중 내년도 예산안을 더욱 철저히 심사해 비효율적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수출효자상품 꼬꼬마 양배추 국내 공급 시작

7일부터 롯데마트서 판매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소득 작물로 발굴한 꼬꼬마양배추가 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롯데마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첫 선을 보인다.

4일 시에 따르면 꼬꼬마양배추는 지난해 7.9ha를 재배해 일본과 대만에 4회에 걸쳐 40톤을 수출했으며 올해에는 16ha로 재배면적을 두 배로 확대하여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한 13회 130여톤을 기록했다. 농기술센터는 연말까지 추가로 20~30톤의 수출이 진행되는 것과 더불어 롯데마트에 약 150톤 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군산꼬꼬마양배추는 샐러드용 양배추 소비가 많은 일본과 다양한 뷔페 요리가 발전한 대만시장을 겨냥해 지난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했다.

특히 2년째에 불과하지만 2019년도 농촌진흥청 ‘수출유망품목’ 선정, 농



꼬꼬마양배추가 롯데마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첫 선을 보인다.

식품부 ‘미래를 케어푸드 프로젝트’ 육성 품목에 선정되는 등 중앙부처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논벼를 대체하는 고소득작물로 지역농가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전국 롯데마트 120여개점에서 동시판매를 시작한다”며 “군산 꼬꼬마양배추는 작은 크기이면서 아삭하고 단맛이 강해 샐러드용으로 소비하기 적합한 품목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을 시장, “유라시아 거점역 위한 초석 놓을 것” 의지 밝혀

정현을 시장이 4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 선정 추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최근익산시 철도정책 포럼을 창립하고 “익산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노선 분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어느 도시보다 최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했

는데, 이번 포럼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순들이 살아갈 익산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고 말했다.

또, “우선적으로 익산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주차장 사용문제 협의를 진행하고, 서틀버스 운행과 발렛파크 실시로 이원화하여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보라.”고 덧붙였다. /익산=장민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